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 본격화

전주시, 내년 초까지 공사 완료 후 개발사업 공사 착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이달 말부터 도심 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된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9일 해당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건축물 해체 허가 이후 지지부진했던 철거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철거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절차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공사 재

개 신고와 더불어 시 환경위생과에 석면철거 감리인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부터 우선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이후 석면철거가 완료되면 건축물 철거와 함께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 조사도 함께 이행해 내년 초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본 개발사업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철거공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음과 분진, 폐기물 반출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가 본격화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의 공사 또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전주시 노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함께 염원하는 노인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전주시 노인의날 기념식 개최

표창·공로장 수여·100세 어르신에 청려지팡이 등 전달

100세 시대를 맞아 전주시 노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함께 염원하는 노인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전주시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홍성언)는 14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표창 수상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전주시 노인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송민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무지개예술지원봉사단(단장 고대현)과 아름다운 삶버전주의꽃(단장 김인식)의 식전 공연 △노인 강령 낭독 △청려장(장수지팡이) 수여 △전주시장 및 전주시의장 표창 수여식 △노인복지공로자에 대한 공로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올해 100세를 맞이한 김옥순 어르신(여, 덕진동)에게 무병장수의 상징인 청려지팡이를 전달했으며, 홍성언 지회장은 축하의 꽃다발을 선물했다.

/권희성 기자

도심 속 흉물 ‘옛 금암고 건물’ 15년 만에 철거

전주시, 내달부터 공사 착수

지난 2010년 폐교된 이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된 전주시 금암동 옛 금암고 건물은 15년 만에 철거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금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옛 금암고 철거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옛 금암고 건물은 현재 폐교된 건축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뿐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로 분류돼 재난 위험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로 금암동 일대 주민들의 불안이자 걱정거리였다.

이에 시는 금암고 일대의 현황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우리동네살리기)’에 최종 선정돼 이를 바탕으로 금암고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금암고 철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철거공사에 착수해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건물 철거 이후에는 해당부지 일원에 금암광장~앞금암마을~금암

도서관을 잇는 경관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을 갖춘 ‘(가칭)거북바우엄마루’를 조성해 주민 생활안전 제공과 마을경관 개선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91억 원을 투입해 △옛 금암고 정비 및 공원·산책로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골목길 및 가로환경 정비 등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가로환경 개선과 주거약자 지원, 도시미관 개선 등을 이뤄내 침체된 이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미국 캔자스시티와 국제 교류 강화

전주시가 미국 중부의 문화경제도시인 캔자스시티와의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4일 전주를 방문한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이 양 도시 간 문화·스포츠·경제 분야 협력 강화의 뜻을 담은 캔자스시티 시장의 공식 교류 희망서한을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의 공식 전주 방문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펼쳐진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양측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전주 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된 문경환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전주 기업의 미국 진출과 양 도시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은 지역 내 기업 박람회 참여하고, ‘BUY 전주’ 우수기업 등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상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양 도시는 간담회를 통해 스포츠·문화·관광·산업 등 다방면의 교류 강화를 약속했으며, 시너지효과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에 전주시를 알리고, 문화와 스포츠를 매개로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 전주의 국제 네트워크가 더욱 넓혀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캔자스시티와 문화·스포츠·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미래문화축제 팔복: 팔복팔경’ 17~19일 개최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전주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을 연다.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간 팔복에 공물장 일원에서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선보이는 ‘2025 미래문화축제 팔복: 팔복팔경’을 선보인다. 올해 미래문화축제의 주제인 ‘팔복팔경(八福八景)’은 팔복동의 공간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기술의 융합, 그리고 예술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덟 가지 경치(景)를 통해 전주가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팔복예술공장에서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통유형 △오방색, 감정의 언어 △실감 미디어로 포착한 교군산군도 △만사

OK 등 다섯 가지 전시 콘텐츠가 먼저 개막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문화축제가 본격화되는 오는 17일부터는 나머지 세 가지 경치가 더해져, 여덟 가지 풍경이 모두 완성된다. 이날 팔복예술공장에서는 팔복동의 산업 유산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통기반 물임형 미디어아트 전시 ‘천년의 숨결, 미래의 빛’ △3D 커브드 LED를 활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산단유적’ △전통연희의 장단과 몸짓을 재구성한 융합형 공연 ‘전주예술난장’이 새롭게 공개된다. 또한 축제 기간 전시뿐 아니라 시민 참여형 공연과 현장 이벤트, 공공 예술 프로젝트 등이 어우러져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관람객이 미래문화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권희성 기자

‘제8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 개최

조선시대 전주에서 치러졌던 특별 과거시험인 ‘전주별시(別試)’가 올해도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된다. 전주별시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이듬해인 1593년 세자 광해가 분조(分朝)해 전주에서 직접 시행한 특별 과거시험으로, 문과 9명과 무과 1000여 명을 선발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22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8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전주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부터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과거시험(국궁(國弓), 한글 글짓기·산문·문문, 한시(漢詩)) △방방례(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 △사은숙배(謝恩肅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민다. 시에는 ‘전주에서 보낸 특별한 하

루’와 ‘문화의 도시 전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원고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사전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시상식이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전주전통문화연구원 누리집에서 칠언율시(七言律詩) 형식의 원고를 내려받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글 글짓기와 마찬가지로 사전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시상식이 거행된다. 모든 과거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과거급제자에 대한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가 진행된다. 급제자에게는 시장상과 어사화가 수여되며, 부상으로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시상식 이후에는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점관과 선배, 친족을 방문하는 전통인 ‘유가행렬(遊街行列)’이 전주전통문화연구원 등에서 시작해 은행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권희성 기자

